

UAE 왕실 경호대 30명 청와대 경호처서 지옥훈련

경호처 훈련장 첫 공개

미국으로부터 배운 한국의 VIP 경호가 세계로 수출되고 있다. 2008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김포공항 인근 경호종합훈련장을 찾아 한국의 체계적인 경호법을 전수받은 나라는 요르단·인도네시아 등 6개국 170여 명에 이른다. 각국의 경호요원들은 항공기 테러와 폭발물 감지 등 실제를

방불케하는 훈련을 받았다. 경호처 경호관들이 종합훈련장의 모형 시가지에서 폭발물이 터지는 상황을 가정한 훈련에 몰두하고 있다(큰 사진). 지난 4일 한국에 온 아랍에미리트(UAE) 왕실 경호대 요원 30명이 13일 경호훈련장에서 장애물 훈련을 받고 있다(작은 사진). 대통령 경호처의 종합훈련장이 언론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용철 기자**



교수님의 열정으로 '승실다움'은 더욱 빛이 납니다

**2011년도 2학기 승실대학교 교수초빙
접수기간: 2011. 4. 25(월) 09:00 ~ 5. 2(월) 17:00**

자세한 사항은 본교 교무처 교무과 (02)820-0141, 0142, 0149 및 홈페이지 www.ssu.ac.kr 참조
*2011학년도 후기 승실대학교 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교학과 (02)820-0258, 0259로 문의 바랍니다

승실대학교
Soongsil University

내일 4·19 51주년 ... 활발해진 이승만 재평가

이인호 “이승만 알아야 현대사 문제 해결”
서중석 “건국 아버지로 부르는 건 부적절”

4·19 혁명 51주년을 맞아 역사학계를 중심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활발해지고 있다. 독재와 시위 유혈 진압 같은 이 전 대통령의 과오와 함께 건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터전을 마련한 공로도 평가해야 한다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를 ‘건국의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인호

서중석

이인호(서울대 명예교수)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은 17일 “5·16으로 집권한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은 이승만 시대의 유산을 잘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세우고 지키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번영의 기틀을 다졌다는 측면에서다. 이 이사장은 중앙SUNDAY와 인터뷰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제대로 알아야 한국 현대사의 문

면 서중석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는 대한민국의 오랜 역사적 뿌리를 고려할 때 ‘건국’이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으며 이 전 대통령을 ‘건국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서 교수는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틀림없이 훌륭한 자유민주주의 헌법이지만 국회의원들과 사회 전체의 역량도 작용했고 미국도 많이 도와줬다”며 “이승만은 오히려 헌

이인호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박정희 ‘한강 기적’은 이승만의 유산
젊은이에게 역사 진실 가르쳐야

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4·19 세력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훼손하려 했던 것은 아니라 점에서 이승만과 4·19는 같은 세력”이라고 제시했다. “4·19 세력은 어렵게 출발한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이데올로기를 바꾸려 했다기보다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데 강조점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 이사장은 이어 “건국 대통령에 대해 그 나라 국민이 느끼는 자긍심은 국민 스스로가 느끼는 긍지와 같은데 우리 국민은 거꾸로 폄하의 길을 걸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공적 국가 건설의 수혜자가 된 젊은이들이 역사를 모르고, 자기가 몸담고 있는 나라의 존재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며 “이승만에 대한 연구가 오랫동안 기피되고 편향된 것은 반(反)대한민국 세력이 느끼는 진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서중석 성균관대 교수

공산화 막은 건 이승만 아닌 미국
전후 학교에 투자한 건 높이 평가

법을 유린하고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그가 없었다면 광복 직후나 6·25 때 공산화됐지도 모른다는 주장에 대해선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를 지켜준 가장 큰 힘은 역시 미국”이라고 반박했다. 외교적 업적에 대해서도 “1950년대 중반 한·일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었는데 총동적인 이승만의 반일 운동으로 기회를 놓쳤다”며 “평화선 설치하는 잘한 것이지만 설득력 있는 대미 외교를 펴지 못했어 영국을 비롯한 우방들과도 사이가 안 좋았다”고 말했다. 다만 “이승만 정부가 잘한 게 있다면 전후의 어려움 속에서도 초등학교와 중학교 건물을 짓는 데 투자한 것”이라고 제시했다. 서 교수는 “정치권이 이 전 대통령 평가에 끼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학자들이 사실과 자료를 놓고 경쟁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김환영·최상연 기자 whanyung@joongang.co.kr

→ 1면 '4·19'에서 이어집니다

고3 학생으로 4·19 혁명에 참여했던 장제모(‘50주년 4·19혁명기념사업회’ 전문위원)씨는 “역사 화해를 한다고 이 전 대통령의 부정적 가치가 다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4·19세대가 결자해지(結者解之·매듭을 묶은 자가 풀어야 한다는 뜻)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1960년 4월

18일 고려대 시위 선언문을 쓴 박찬세씨의 경우다. 그 역시 사건임을 전제로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과오는 분명하고, 그에 항거한 4·19 혁명의 성취는 뚜렷하다. 그런데 이제 50년이 넘었다. 이 전 대통령의 공적도 제대로 평가해 그를 역사의 족쇄에서 풀어줄 때가 됐다. 오늘의 시점에서 볼 때 이 전 대통령과 4·19 세대의 지향점이 다른 것도 아니다. 그와 대척점에 섰던 4·19 세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